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시민 인문강좌 방향성 고찰

- 부산외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김민영*·김율경**

- 목 차 -

- I. 서론
- II. 시민 인문강좌 성과 및 한계점 분석
 1. 성과 분석
 2. 한계점 분석
- III. 시민 인문강좌 발전방안 모색
 1. 시민 인문강좌 지속 운영의 필요성
 2. 발전방안 제시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부산외대에서 인문학 성과 확산을 위해 운영되었던 대외 프로그램들 중 가장 대표적인 시민 인문강좌 프로그램을 한 사례로 프로그램의 성과분석을 통해 시민 인문강좌의 빌전방안과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부산외대에서 3년간 운영된 시민 인문강좌의 문제점을 수강자와 운영자의 입장에서 나누어 분석하고,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일환으로 시민 인문강좌 운영의 방향성을 지역과 대학의 역할로 이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융합교육원 연구교수 (2017년 6월~2019년 2월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소속)

** 부산대학교 기획평가과 사무원(2016년 7월~2019년 2월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소속)

서 제안하는 발전방안은 첫째, 지자체에서 ‘지역 인문학 센터’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둘째,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과 셋째, 프로그램이 끝난 뒤 수강자, 운영자, 강사가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시민인문강좌, 인문학,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교육

I. 서론

대학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사회로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민대상의 강좌형 프로그램일 것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는 2016년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¹⁾에 선정되어 외국어대학의 특성화를 반영한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정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문화 간 소통능력 배양을 목표로 글로벌과 인문학을 융합한 ‘글로벌 인문학’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CULTURE I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시민 인문강좌와 시민 인문학세미나로 구성되어있다. 부산 외대에서 시민 인문강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전국의 여러 대학과 지자체에서는 인문학 열풍에 힘입어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 강좌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1)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CORE사업,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추진하며 인문학 진흥을 목적으로한다. 2016년 3월 수도권의 가톨릭대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8개 대학과 지방의 가톨릭관동대와 경북대, 계명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외국어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되어 오는 2019년 2월까지 운영한다.

불구하고 근본적인 인문학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각 강좌 운영기관들이 인문학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산외대에서 인문학 성과 확산을 위해 운영되었던 대외 프로그램들 중 가장 대표적인 시민 인문강좌 프로그램을 한 사례로 프로그램의 성과분석을 통해 시민 인문강좌의 발전방안과 방향성을 고찰하고, 지자체와 해당 지역 대학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II. 시민 인문강좌 성과 및 한계점 분석

부산외대는 부산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민 인문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민 인문강좌는 “One People One Culture” 한 사람이 다른 국가, 문화를 더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문학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인문강좌는 찾아오는 인문강좌 형태의 ‘교내 시민 인문강좌’와 찾아가는 인문강좌 형태인 ‘교외 시민 인문강좌’ 총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아래에서는 시민 인문강좌를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한계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성과 분석

1) 교내 시민 인문강좌

교내 시민 인문강좌(이하 교내강좌)는 부산 시민들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 세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의 단초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자 마련한 강좌이다. 교내강좌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듣기 위해 대학을 직접 찾아 참여하는 강좌이다. 강좌는 연간 2회, 학기제로 운영하였다. 교내강좌는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 1회, 저녁 시간 대에 편성하였으며, 3년간 고정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하였다. 교내강좌는 운영 가능한 일정과 예산을 고려하여 학기에 최소 5개 강좌에서 최대 12개 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교내강좌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교내강좌 진행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진행 횟수	-	10회	5회	10회	12회	8회	45회
수강 인원	-	714	326	574	568	454	2,636명

교내강좌는 3년간 5학기에 걸쳐 총 45번의 강좌를 진행하였고, 참여 인원은 총 2,873명으로 그 중 교수자와 운영진을 제외한 순수 수강자는 2,636명이다. 2016년에는 부산외대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내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교내강좌는 2학기에 처음 운영되었다. 5학기 동안 진행된 교내강좌는 ‘세계와 나를 잊는 글로벌 인문 강좌’라는 슬로건 하에 문화 간 소통을 목표로 여러 국가의 문화, 역사, 철학을 주제로 3년 간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였다. 5학기 동안 진행된 교내강좌의 목록을 통해 주제와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교내강좌 목록]

연도	강좌 주제		국가	참여 인원
2 0 1 6	혁명과 낭만이 공존하는 나라, 쿠바의 역사와 문화		쿠바	79
	아드리아해의 보석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67
	미국의 역사와 문화 알고보면 더 재미있다		미국	67
	이혼이 힘든 나라, 이탈리아의 여성운동		이탈리아	76
	장자크 루소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그리고 시민교육		프랑스	80
	오해와 왜곡의 이슬람 문화 바로보기		아랍	86
	힌두 그리고 따즈마힐속으로		인도	76
	자유의 땅 타일랜드의 사회와 문화		태국	63
	커피로 만나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라틴아메리카	55
	바로크 예술작품으로 보는 유럽문화		유럽	65

연도	강좌 주제	국가	참여 인원
1학기 2017	천 년의 종교, 러시아 종교의 미학	러시아	76
	독일관념론 철학을 통해 본 인문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독일	63
	나폴레옹이 반한 이집트의 보물들	이집트	75
	중국 화교 문화 탐방기	중국	57
	과야사민(Guayasamin)의 작품과 사상을 통해 이해하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어제와 오늘	라틴아메리카	55
2학기 2017	러시아 원동의 숨은 역사와 문화 : 1. 러시아 원동에 묻힌 한국 고대사, 그리고 김일성	러시아	91
	러시아 원동의 숨은 역사와 문화 : 2. 담비전쟁 - 제국의 시베리아 & 원동 침략의 진실	러시아	59
	러시아 원동의 숨은 역사와 문화 : 3. 항일과 극일의 성지 러시아 원동, 그리고 사할린과 다문화	러시아	63
	독일, 두 번의 통일 - 비스마르크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까지	독일	73
	종교개혁 500주년 - 마르틴 루터, 중세를 깨고 근대를 열다	독일	55
	스페인의 치명적인 유혹 5가지	스페인	61
	테러집단은 왜 프랑스를 노리나?	프랑스	50
	Ernest Hemingway, 시간의 춤 - 그대여 삶이란?	미국	49
	당송 시기를 통해본 여인의 생활 - 화장, 장식, 복식	중국	40
	자연을 마신다 : 라틴아메리카의 허브티	라틴아메리카	33
1학기 2018	광활한 러시아 대륙에 흐른 역사와 문화	러시아	65
	종교와계급 - 권력자의 러시아 정교와 민중의 정교	러시아	55
	아랍 만에 살아 숨 쉬는 역사 - 오만을 가다	오만	54
	천상의 도시, 안데스의 문화유산	남아메리카 /안데스	46
	서양의 정치철학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38
	바티칸 박물관 -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이탈리아	49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국	45
	오르세미술관 - 인상파 화가, 근대를 열다	프랑스	49
	셀마의 눈물 - 마틴루터킹, 자유를 위한 여성	미국	42
	루브르 박물관 - 너무많다! 꼭 봐야 할 그림과 조각은 뭐지?	프랑스	46
	시간이 멈춘 나라 라오스	라오스	42
	일본인의 인간관계와 음식문화	일본	37

연도		강좌 주제	국가	참여 인원
2018 2학기		행복과 감정에 관한 철학 이야기	-	62
		새 종교지도 - 소련 붕괴 이후의 다종교의 새 지평	러시아	54
		멕시코 혁명 로드를 따라가는 멕시코 역사 문화 탐방	멕시코	58
		동서양의 관문 터키	터키	63
		유럽에서 아시아를 만나다 : 훈족의 후예 헝가리	헝가리	50
		세익스피어 원류 : 서양문화의 근원	미국	56
		와인으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유럽	58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읽는 유럽 문화	유럽(영국)	53

위의 표를 살펴보면 2016년 10개 강좌, 2017년 15개 강좌 그리고 2018년에는 전년도 보다 5개의 강좌를 추가하여 20개 강좌를 편성하였다. 2016년에는 쿠바, 크로아티아, 프랑스, 인도, 태국 등 총 세계 10개국의 강좌를 개설하였고, 주로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강좌가 구성되었다. 2017년에는 러시아, 독일, 이집트, 중국 등 7개 국가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강좌가 구성되었고, 2018년에는 오만, 라오스, 일본, 터키, 헝가리 등 11개 국가와 남아메리카와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강좌가 진행되었다. 강좌의 목록을 살펴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 뿐 아니라 철학 관련 강좌를 추가 편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서 다룬적 없었던 오만, 라오스, 헝가리 등의 국가를 소개함으로써 국가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2) 교외 시민 인문강좌

2017년부터는 찾아가는 인문강좌 프로그램으로 교외 시민 인문강좌(이하 교외강좌)를 운영하였다. 교외강좌 역시 ‘글로벌 인문학’을 테마로 2017년과 2018년에 각 1학기씩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대학의 우수한 교육적 자원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발된 교외강좌는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한 시도였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017년 2학기에 부산시 북구 소재의 만덕 사회복지관에서 첫 교외강좌를 운영하였

다. 2018년에는 부산시 중구 자갈치시장으로 교외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교외강좌의 경우 지자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상황과 수강가능한 시민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운영하였다. 교외강좌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교외강좌 진행 현황]

연도	2017		2018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진행 횟수	-	5회	-	6회	11회
수강 인원	-	123명	-	75명	198명

2017년에 처음 운영된 교외강좌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총 5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수강자의 특성을 반영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낮시간에 진행하였다. 참여 인원은 총 143명으로 그 중 교수자와 운영진을 제외한 순수 수강자는 123명이다. 2018년에는 글로벌 인문학을 실현할 현장으로 부산시 중구를 선택하였다. 남포동과 자갈치시장이 소재한 중구는 국제적 관광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상인들의 이문화 소통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자갈치시장 건물에서 강좌를 진행하였다. 자갈치시장에서 진행된 강좌는 11월에서 1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총 6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강의장이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해 상인들이 바쁜 주말시간을 피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6주에 걸쳐 운영하였다. 참여 인원은 총 97명으로 그 중 교수자와 직원을 제외한 순수 수강자는 75명이다. 두 학기 동안 진행된 교외강좌는 ‘세계의 벽을 허물고 또 다른 나를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기행’이라는 슬로건 하에 교내강좌와 마찬가지로 문화 간 소통을 목표로 여러 국가의 문화, 역사, 철학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였다. 목록을 통해 주제와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교외강좌 목록]

연도		강좌 주제	국가	참여 인원
2017	2학기	유럽의 문화, 이는만큼 재미있다	유럽	22
		프랑스 와인과 음식 문화	프랑스	39
		렌즈를 통해 바라본 미국	미국	20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언어 – 춤과 음악	라틴아메리카	18
		아랍과 이슬람 문명 이해하기	아랍	24
2018	2학기	유럽의 문화, 예술로 읽다	유럽	15
		아메리칸 드림과 멜팅팟(melting pot)	미국	15
		프랑스 와인, 알고 마시면 더 행복하다	프랑스	11
		서양 정치 철학과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	-	10
		아랍과 이슬람 문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랍	10
		태양의 도시 잉카의 문화유산	라틴아메리카	14

위의 표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랍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강좌가 편성되었고, 2018년에도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랍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강좌와 철학관련 강좌가 편성되었다.

이상으로 교내강좌와 교외강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인문강좌가 갖는 의의와 특징, 교내외 강좌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시민 인문강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 인문강좌는 일회성 성격을 지니는 일반 특강과는 달리 지속성을 갖고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된 강의이다. 강의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외대가 갖는 특색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시민 인문강좌에서 진행되었던 강좌들 중 일부는 해당 교원이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아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연구되어진 성과와 교육역량을 시민사회로 확산하여 지역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구현시켰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민 인문강좌는 강좌 기획과 운영 시 책임교수를 위촉하였으며, 강좌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외대 소속의 교원이 직접 참여하여 강의안을 작성하고 강의를 진행하여 내실 있는 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좌가 운영된 2017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외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대학과 지역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3년 동안의 만족도 조사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교내외 강좌 총 56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 강좌가 시작할 때 조사지를 교부하고 강좌가 끝날 때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만족도 조사지는 총 7개의 선택형 문항과 1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²⁾, 선택형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된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차에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강의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에는 94.7%, 2017년에는 91.7%, 2018년에는 92.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교외강좌의 경우 2017년에는 94.2%, 2018년에는 91.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8년도 10월 진행되었던 마지막 주차의 강좌에서 인문학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시민 인문강좌를 운영 형태에 따라 교내강좌와 교외강좌로 나누어 특징을 바탕으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내강좌와 교외강좌 모두 일회의 단발적 수강이 되지 않도록 사전 신청을 통해 수강신청을

2) 만족도 조사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문항 내용
문항1	강좌는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문항2	강사는 참석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문항3	전체적으로 강좌 내용 구성이 잘 되었다.
문항4	강좌 진행 시간 구성(횟수)이 적절하였다.
문항5	강좌는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문항6	기회가 된다면 보다 다양한 강좌에 참여할 것이다.
문항7	전체적으로 강좌에 만족한다.
서술형	강의에서 좋았던 점이나 추후 희망사항(건의사항)

받았다. 그러나 당일 신청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교외강좌의 경우 협업하는 지자체, 강좌를 진행하는 장소, 주변환경 및 수강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학기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교내강좌와 비교했을 때 진행 횟수가 적었다. 또 교내강좌의 경우 해당 학기에 출석률이 70% 이상일 경우 부산외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단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는 대학에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매 학기마다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고, 단발적으로 수강하는 수강자들이 거의 없으며 사전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교외강좌의 경우 사전 신청자보다 단발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이 많았을뿐 아니라 진행 횟수가 적기 때문에 수료증 발급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으로 시민 인문강좌를 운영 형태에 따라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민 인문강좌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없애고, 인문학을 대중화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부산외대의 경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인문학’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국가의 문화, 역사 등의 정보뿐 아니라 이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문화 활동 증가, 노년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 인문강좌를 바라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다음에서는 시민 인문강좌가 갖는 한계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한계점 분석

본장에서는 다년간 시민 인문강좌 기획과 운영으로 누적된 경험과 성과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수강자와 운영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저자는 시민 인문강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강자와 운영자의 관점에서 시민 인문강좌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강좌의 구성과 커리큘럼

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강좌를 수강한 수강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좌의 기획과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운영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민 인문강좌의 한계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수강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민강좌의 문제점

먼저 수강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민 인문강좌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산외대에서는 2016년부터 매 강좌가 진행될 때마다 수강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3년 간의 만족도 평균은 92.86%로 나타나 수강자들 대부분이 강좌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을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3년간 총 56회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서술형 문항에 수강자들이 기재한 답변을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제외하고 건의 또는 희망사항에 대한 답변만을 선별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수강자들이 작성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강자들의 의견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한 강좌의 만족도 조사지에 기재된 서술형 답변들 중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보았다. 총 56회 강좌에 대한 의견 중 많이 언급된 내용, 강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압축하였다.

첫째, 강좌 횟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강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답변이 총 28회 강좌에서 언급되었다.³⁾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강좌 횟수가 적다’, ‘지속적으로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시민 인문강좌의 운영 횟수를 살펴보면 매 학기 강좌의 진행 횟수가 제각각이었다. 특히 교내강좌의 경우 매 학기별 강좌 진행 횟수를 비교해보면 가장 적게 진행된 것은 2017년도 1학기 5회,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은 2018년도 1학기 12회로 나타났다. 이

3) 답변들 중에서 ‘강의 시간이 짧으므로 자주 강의를 편성하면 좋겠다.’ 또는 ‘강의가 짧다. 자주 하면 좋겠다.’ 등의 답변은 문맥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이 아닌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좌 진행 횟수 증가 희망에 포함시켰다.

둘의 경우를 비교해볼 때 강좌 진행에 있어서 약 2.5배가 차이난다. 이처럼 강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기 별 진행 횟수가 각기 달라 수강자의 입장에서는 강의가 지속적으로 개설되지 않는다고 보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강좌 진행과 운영에 있어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총 10회 강좌에서 언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 고전,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개설 희망’, ‘다양한 국가를 주제로 하는 강의 희망’, ‘주제가 반복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심화학습 과정을 희망하는 의견이 총 6회 강좌에서 언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제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다’, ‘강의실에서 벗어나 현장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고급반이 개설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앞에서 제시된 두 가지 문제점은 시민 인문강좌의 성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 또는 주제를 심도있게 학습한다고 보긴 어렵다. 시민 인문강좌가 학기 단위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강좌 내용이 연속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없고, 시민들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강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국가 또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교외강좌의 경우 교내강좌와는 다르게 강좌운영에 있어 협력기관의 상황, 강의 장소 대여 등의 문제로 연속적인 학기 운영이 어렵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발적 1회 수강을 허용하고 있어 심화학습으로의 단계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상으로 수강자들이 직접 제기한 만족도 조사 상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해보았다. 다음에서는 운영자의 관점에서 취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민강좌의 문제점

시민 인문강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운영진의 입장에서 운영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⁴⁾

첫째,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 특성상 강좌진행이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본 시민 인문강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기회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 인문학 확산을 목적으로 구성된 본 취지와는 달리 사업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일반 시민들이 인문학에 대해 친숙함과 익숙함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인문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들을 양성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예산과 인원수 등 계량적 수치로 실적을 판단하는 운영 구조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집중하기 어렵다. 본 강좌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매년 참석자의 수에 대한 성과 지표를 보고하고 달성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단의 기준과 틀 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운영 기획 단계에서 참석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흥미 유도 위주의 주제 선정, 강사 섭외, 다양한 혜택 제공에 치우치게 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강좌를 운영하기 일쑤이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평가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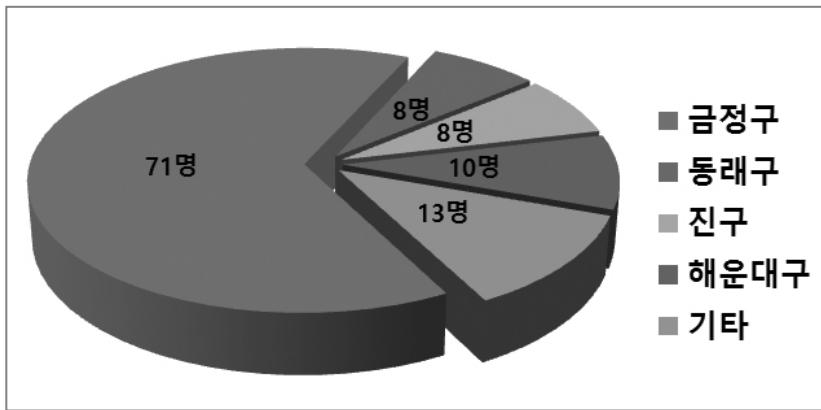
셋째, 각 운영기관의 협업 부재이다. 최근 인문학 열풍에 힘입어 지역대학, 구청, 동사무소, 재단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시민 인문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운영현황, 기관별 교육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상호 간 교육의 질적 경쟁을 벌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지역대학과 시민단체 간의 연계성과 협업 부족은 서로의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강좌참여로 여러 기관의 강좌를 비교하게 되고 지역의

4) 운영자의 관점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매년 프로그램 종합평가 시 운영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조사했던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조사, 사업단에서 진행했던 자체평가의 성과를 참고하였다.

인문학 관련 다양한 사례 발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밀착형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지 않고 단순히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강좌형태로 도태되기 쉽다.

넷째, 홍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지역의 편중성이다. 인문강좌 참여자 모집을 위해서는 기존 인력풀의 활용과, 인근 지역 홍보활동 외에는 한정된 예산과 타 기관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해 외부기관의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 사업단의 2018년도 교내 시민 인문강좌의 사전 신청자는 총 110명으로 주거 지역을 조사한 결과 금정구(71명), 해운대구(10명), 동래구(8명), 진구(8명) 순으로 금정구민의 참여율은 64%로 1위로 나타났다. 이는 강의 장소에 대한 접근성과 강의를 주최한 측이 대학이라는 점이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대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다양한 지역구민 확대를 위한 홍보에 어려움과 낮은 접근성은 타 지역구 시민들의 참여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민 인문강좌는 한 도시 내 거점 지역을 선정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5] 2018 수강생 거주지역 현황



다섯째,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활동의 사례 발굴과 운영이 어려웠다. 그동안 많은 시민인문강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긴밀하게

호흡할 수 있는 후속 모임 조성이 쉽지 않았다.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 사업단은 2017년도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의뿐 아니라 심화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 인문학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인문강좌 접수 시 세미나 참여 여부를 사전 조사 하였다. 응답자 110명 중 60명의 시민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2017년도 첫 인문학 세미나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균 10명 정도이며, 사전 수요자의 숫자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부산외대에서는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나 많은 참여를 끌어내진 못했다.

이상으로 시민 인문강좌의 문제점을 수강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만족도조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운영진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본 장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인문강좌 기획 및 운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III. 시민 인문강좌 발전방안 모색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문학 진흥에 많은 지원을 해오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사업)이 끝이 나면서 향후 지속적인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 인문강좌의 지속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2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끝난다고 해도 대학과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문강좌 지속 운영의 필요성

인문학 대중화와 실천에 관한 문제의식은 2005년도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성프란시스 대학의 ‘노숙인 인문학’의 시작과 함께

본격화 되었다. 이후 대중 지성, 실천 인문학 등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다각적 차원에서 인문학의 활기와 성과를 올려 왔다.⁵⁾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정부의 인문학 진흥 정책은 인문학 활용과 확산, 기본 교양과 문화자본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실천적 인문학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의 교양을 위한 인문학으로 변모하였다.⁶⁾ 2014년도 정부의 인문학 진흥 사업은 전년도 대비 60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사업)’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형태의 인문학 진흥 사업도 생겨나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같은 해 2월에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인문학 진흥 정책이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의 경우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창의성은 인간의 상상력이 집약된 인문학 소양을 축적함으로써 생겨난다. 인문학은 문학·역사·철학·예술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 있는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는 학문 분야이므로 인문학 강좌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기회가 된다.⁷⁾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문학 강좌는 인간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고찰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을 배양하고, 교육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날로 길수록 점차 심화되는 경쟁구도와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또 인문학 교육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인

5) 정은경, 「인문학의 성과 확산,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문화』 제63호, 국어문화회, 2016, 368쪽.

6) 손정훈, 김민규, 「인문학 현상과 인문학 진흥정책(2007~2014)」,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6, 42쪽.

7) 박재술, 「인문학 강좌 실태 조사 연구 조사연구-2007-007-학술정책」,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16~19쪽.

사고의 습관을 강화시킬 수 있다.⁸⁾ 다시 말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타인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성찰하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소외계층은 사회적 여건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지적 요구를 충족 시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인문학을 통해 성찰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삶의 진정한 주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처럼 인문학 강좌는 정신적 가치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삶의 질을 개선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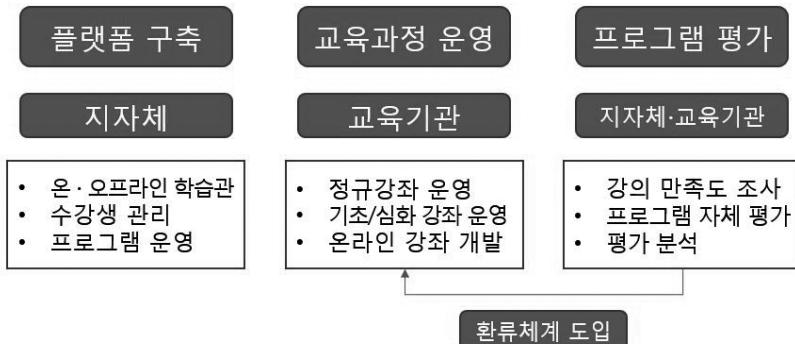
2. 발전방안 제시

본 절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서 대학이 시민 인문강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지자체의 역할

보다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인문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강생 모집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운영 플랫폼(온·오프라인)을 구축하여 인문강좌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대중화 및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선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자체는 ‘지역 인문학 센터’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학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박재술, 「인문학 강좌 실태 조사 연구 조사연구-2007-007-학술정책」,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16~19쪽.



우선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 운영계획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좌설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강사와 시민 수강생들의 현황을 파악한 후 각 주차의 강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강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는 그 대상을 수강자, 교수자, 운영자로 나누어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차시 프로그램 운영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적 시스템(CQI)을 구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운영자와,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또 다를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강좌에 대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사, 교수자를 대상으로 강좌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차기 강좌 운영 시 수정 보완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규강좌를 진행해야 한다. 정규강좌는 수강자의 학습 이수시간 및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단계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인문학 센터라는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강좌 등을 운

영할 수 있을 것이고, 타 지역과의 인문학 강좌 및 인력풀 공유가 가능해진다. 또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강좌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개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오프라인 강좌 참여가 불가능한 수강자를 위해 온라인 학습관을 통해 강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강의 진행 공간 및 설비 확보, 강사 확보 및 강의료 지원 등에 따른 재정적인 인프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의 역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강좌운영에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연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학의 역할을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시민 인문강좌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 바 시민 인문강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강좌 진행 및 편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또 지역 인문학 센터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은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주체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운영지침서 및 체계적인 강좌 운영을 위해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면 그 다음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양산해내는 양질의 교육내용을 MOOC, KOCW, TED 등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활용하여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의 경우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하나는 대학이 가진 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외대의 경우 외국어대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를 문화, 예술, 철학 등의 주제로 소개하는 내용의 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대학의

특수성과 결합된 교육콘텐츠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강좌 운영에 있어서 수강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습의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강좌를 기획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학습의 난이도나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단계화 시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중 부산외대에서 운영되었던 시민 인문강좌를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운영 병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시민 인문강좌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일환으로 시민 인문강좌 운영의 방향성을 지역과 대학의 역할로 이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시민 인문강좌는 지역사회 속에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공유하고, 교육의 장(場)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또한 대학이 존재하는 중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지역문화 창달, 정서적 안정 및 미래의 창의성을 갖춘 지식인으로서의 성장 등을 위해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인문학 강좌를 강의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문강좌를 단순 강좌가 아닌 평생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인문 교양강좌로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 교육으로서의 인문강좌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향 확대하여 대상에 맞는 맞춤형 강좌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와 대학(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초보적 단계에서의 제안서일 뿐이다. 향후 이와 같은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과 대학(교육기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조 할 것임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남진숙 외, 「청소년 인문학 강좌의 사례 연구 및 나아갈 방향성 -시민인문강좌 <찾아가는 인문(人文), 찾아오는 입문(入門)>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제105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박연규, 「지역밀착형 인문학 프로그램 – 수원의 인문도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제33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박재술, 「인문학 강좌 실태 조사 연구 조사연구-2007-007-학술정책」,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 손정훈·김민규, 「인문학 현상과 인문학 진흥정책(2007~2014)」, 『글로벌문화콘텐츠』제2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6.
- 유은정, 「인문학의 대중화 방안 – 아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제 26권 4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정은경, 「인문학의 성과 확산,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문화』제63호, 국어문학회, 2016.
- 진정일,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시민인문강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10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Abstract>

The study to the direction of civic humanities
lecture for the population of Humanities
– By analyzing the outcome of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Min-young·Kim, Yul-kyung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development plan and direction of civic humanities lecture through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rogram,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itizen humanities lectures to spread humanities achievement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 have also analyzed the problem of citizen's humanities lecture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 three years by separating the perspective of attendee and operator. Due to the purpose of popularization for Humanities, we divide the directions of citizen's humanities lecture as the role of community and university.

The development plan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latform called 'Regional Humanities Center'. Secondly, it will cooperate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to manage curriculum planning and operation. Lastly, after the lecture, the attendee, operator and the instructor should evaluate the program and make the feedback process in order to understand and share each participant's view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guidelines that can attribute to

foster citizens who have humanities knowledge, and provide elemental suggestion to achieve our goal.

Key words : citizen's humanities lecture, humanities, the humanities popularization, humanities education

김민영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융합교육원 연구교수

(48752)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41 오션브릿지아파트 101동 2103호

전자우편: kmy8577@hanmail.net

김율경

부산대학교 기획평가과 사무원

(46272)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16 부산대역삼정그린코아 스카이동 1412호

전자우편: yul_kyung2@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2월 26일 투고되어 2019년 4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